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의 효과 및 과제 -인식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선필호
부연구위원

*Perceived Effectiveness of Pictorial Health Warnings
on Tobacco Package in Korea*

- 2016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국민 인지도 및 효과성 분석 등을 위해 성인 1,025명과 청소년 514명을 대상으로 2차(2017년 2월, 5월)에 걸쳐 패널조사를 실시하였음
- 경고그림은 경고문구로만 구성된 건강경고와 비교했을 때 흡연의 건강위험성을 알리는 효과, 흡연자의 금연 또는 흡연량 감소, 비흡연자의 흡연시작 방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고그림 10종 주제 중 구강암, 후두암, 심장질환에 대한 인식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고그림 면적에 대해서는 포장면적의 80.0%를 표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경고그림 교체와 표기면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1. 배경

□ 경고그림 도입

-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위해 정보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시인성이 높은 그림 또는 사진을 담뱃갑에 표기하는 제도임

- 단순히 경고문구만을 표기하는 것보다 그림과 함께 표기하는 것이 흡연 억제에 더욱 효과적이며, 그림을 통해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이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건강경고 효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임
 - 또한, 경고그림은 흡연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유지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함¹⁾
- 우리나라는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비준한 이후 경고그림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안 도입을 추진하였고, 2016년 12월 23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10개 이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년마다 교체해야 하며, 경고그림은 상단에 위치해야 하는 등 경고그림 표기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효과 평가 필요

- 경고그림은 개인의 건강 및 공중보건 강화에 따른 사회적 이익 증대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담배회사의 영업 자율성과 흡연자의 선택권 등 사적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도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사적영역의 침해를 뛰어넘는 제도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되고 있음
- 경고그림의 효과성은 국외사례 및 국내연구를 통해 일부 입증은 되었으나, 실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효과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경고그림 교체를 위해 각 그림별 효과를 평가하고 계속 사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도 있음

2. 조사방법 및 내용

□ 조사개요

-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고그림 제도 시행 전·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경고그림 표기 담배 본격 유통 전과 본격 유통 후 각각 1회씩 총 2회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1차) 기존 경고문구의 효과, 경고그림이 표기될 경우에 예상되는 효과 등이 조사되었음
 - (2차) 경고그림 표기에 대한 효과, 경고그림 면적에 대한 의견, 10종 주제별 경고그림에 대한 효과 등이 조사되었음
- 조사는 1차와 2차 조사 간 효과 평가를 하기 위해 조사대상이 같은 패널조사(panel survey)로 진행되었음

1) 오유미·최유진·이선영 외(2015).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제작 연구. 서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표 1〉 조사개요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조사기간	2017.2.21~3.19 (경고그림 표기 담배 본격 유통 전)	2017.5.10~5.22 (경고그림 표기 담배 본격 유통 후)
조사대상	성인 1,611명 / 청소년 816명	성인 1,025명 / 청소년 514명 ※ 1차 조사 참여자로 한정하여 실시
조사내용	흡연행태 · 흡연경험, 흡연기간 및 흡연량, 금연 여부, 흡연 지속 의향 등	좌 동
	경고문구에 대한 생각 · 흡연의 건강 위험성을 알리는 효과 · 흡연량 감소 및 금연 효과 · 비흡연자의 흡연시작 방지 효과	-
	경고그림 시행 인지 ·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사실 인지여부 · 경고그림을 본 경험 및 경로	좌 동
	경고그림에 대한 생각 · 흡연의 건강 위험성을 알리는 효과 · 흡연량 감소 및 금연 효과 · 비흡연자의 흡연시작 방지 효과	좌 동
	-	표기 면적에 대한 생각 · 현행 표기면적의 적절성 · 효과적인 표기면적
-	각 경고그림별 효과성 · 10종 주제에 대한 효과성 · 효과성이 낮아 교체가 필요한 경고그림 · 가장 효과성이 낮은 경고그림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한국갤럽조사연구소 수행)	

□ 조사도구

- 조사도구는 설문지(questionnaire)가 이용되었음
- 설문은 국외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흡연행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효과, 경고그림 주제별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음
 - 흡연행태에 대한 조사 및 흡연자 구분을 위해 성인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를 참고하였음²⁾³⁾
 - 경고그림으로 인한 인식의 변화, 행동 변화에 대한 질문은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음⁴⁾⁵⁾⁶⁾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설문지는 국내 담배규제 전문가 6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되었음

2) 질병관리본부(2016).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 건강설문 조사표

3)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4) White V., Webster B., Wakefield M.(2008). Do graphic health warning labels have an impact on adolescents' smoking-related beliefs and behaviours?. *Addiction* p.103, pp.1562~1571

5) Thrasher J.F., Abad-Vivero E.N., Huang L, et. al.(2016).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bout pictorial health warnings on cigarette packages : Policy-related influences and relationships with smoking cessation attempts. *Soc Sci Med* p.164, pp.141~149

6) Moodie C., MacKintosh A.M., Hammond D.(2010). Adolescents' response to text-only tobacco health warnings : results from the 2008 UK Youth Tobacco Policy Survey. *Eur J Public Health* 20(4), pp.463~469

3. 주요 조사결과

□ 응답자 특성

- 목표 표본은 성인 1,000명, 청소년 500명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1차 조사에서는 성인 1,611명, 청소년 8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2차 조사는 1차 조사 대상자 중 성인 1,025명 청소년 514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응답자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약 50 : 50이었으며, 흡연자 비율은 성인의 경우 42.8%, 청소년은 9.3%였음

<표 2> 응답자 특성

구분		성인		청소년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25	100.0	514	100.0
성별	남자	520	50.7	254	49.4
	여자	505	49.3	260	50.6
연령별	13~15세	-	-	141	27.4
	16~18세	-	-	373	72.6
	19~29세	186	18.1	-	-
	30대	194	18.9	-	-
	40대	227	22.1	-	-
	50대	219	21.4	-	-
	60세 이상	199	19.4	-	-
흡연여부	비흡연	586	57.2	466	90.7
	흡연	439	42.8	48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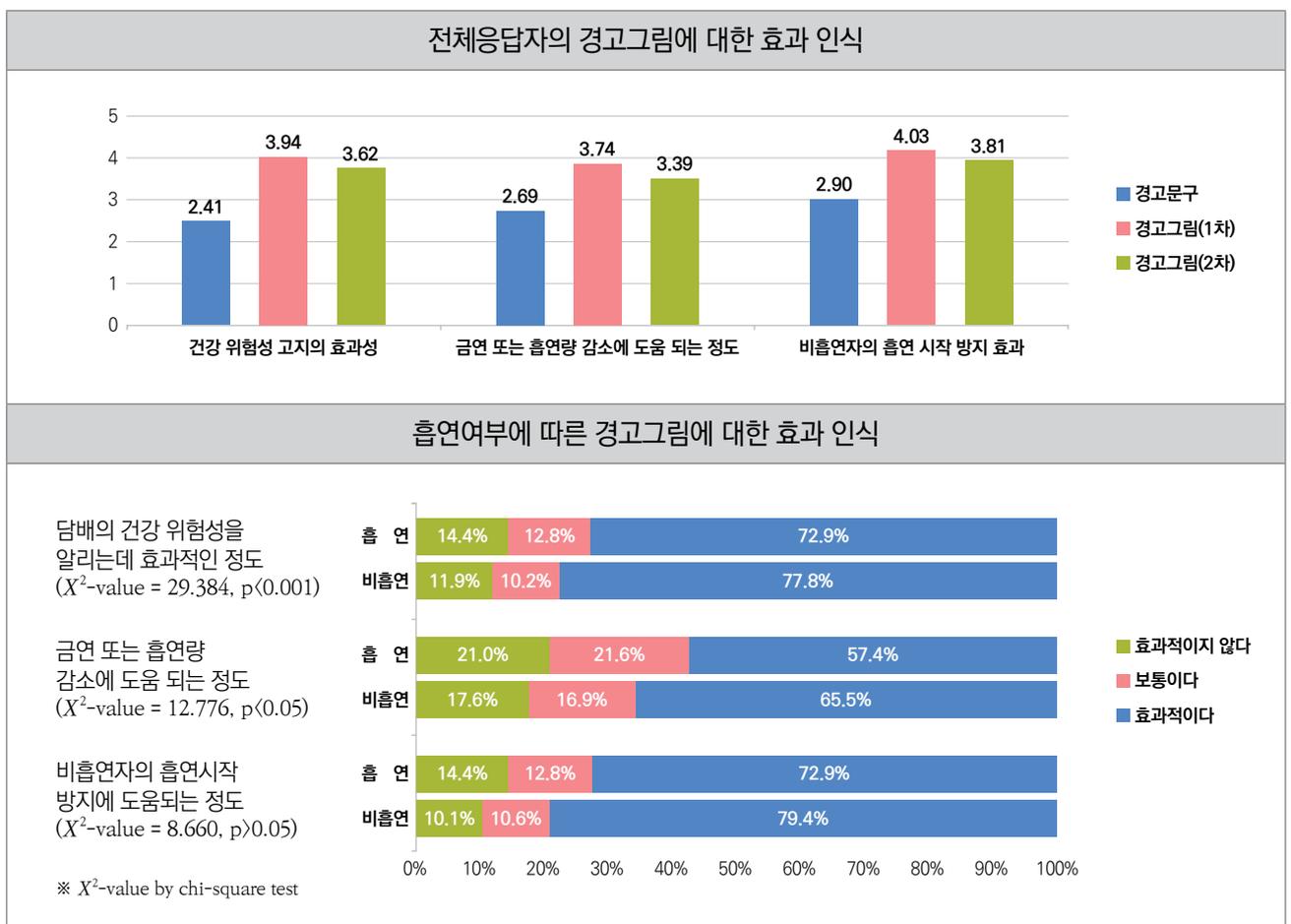
□ 경고그림 시행 인지

- 경고그림 제도 시행에 대해 1차 조사에서는 성인의 84.6%, 청소년의 74.9%, 2차 조사에서는 성인의 94.0%, 청소년의 92.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1차 조사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시행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성인의 84.2%, 청소년의 83.9%는 경고그림을 본 적이 있었으며, 주로 소매점에 진열된 담배를 통해 보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음(성인 70.7%, 청소년 65.9%)
 - 그 외에 뉴스, 기사 등 언론보도를 통해서 성인의 66.2%, 청소년의 55.5%,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구매한 담배를 통해서 인지한 비율은 성인의 58.2%, 청소년의 47.3%인 것으로 나타났음

□ 경고그림의 효과 인식

-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학적 검증은 X^2 -test가 사용되었음
- 경고그림은 기존의 경고문구로만 구성된 건강경고와 비교했을 때 흡연의 건강 위험성을 알리는 효과, 금연 또는 흡연량 감소에 도움되는 정도, 비흡연자의 흡연시작 방지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 중에서도 비흡연자의 흡연시작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비흡연자는 흡연자보다 담배의 건강 위험성을 알리는 효과($p < 0.001$)와 금연 또는 흡연량 감소 효과($p < 0.05$)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1] 경고그림 효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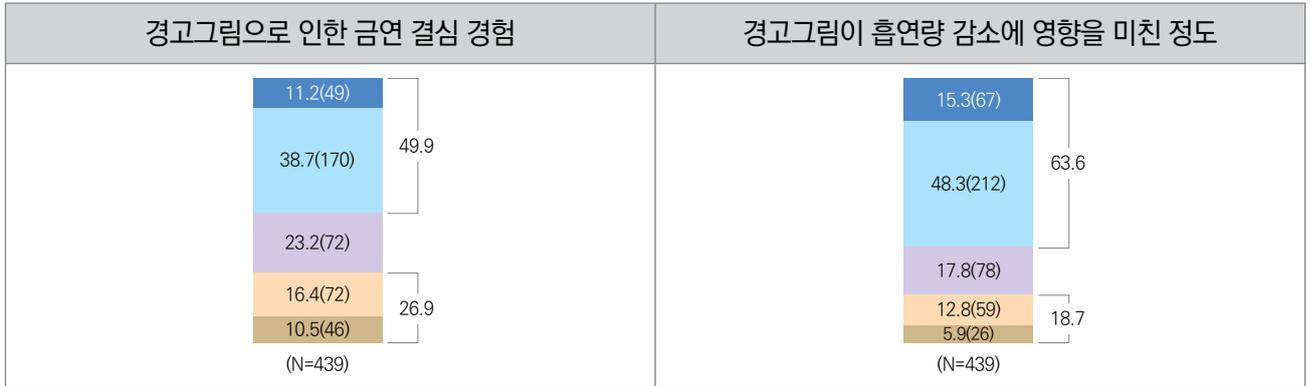


□ 성인 흡연자의 금연 유도

- 성인 흡연자의 49.9%가 경고그림을 보고 금연을 결심한 적이 있고, 63.6%는 흡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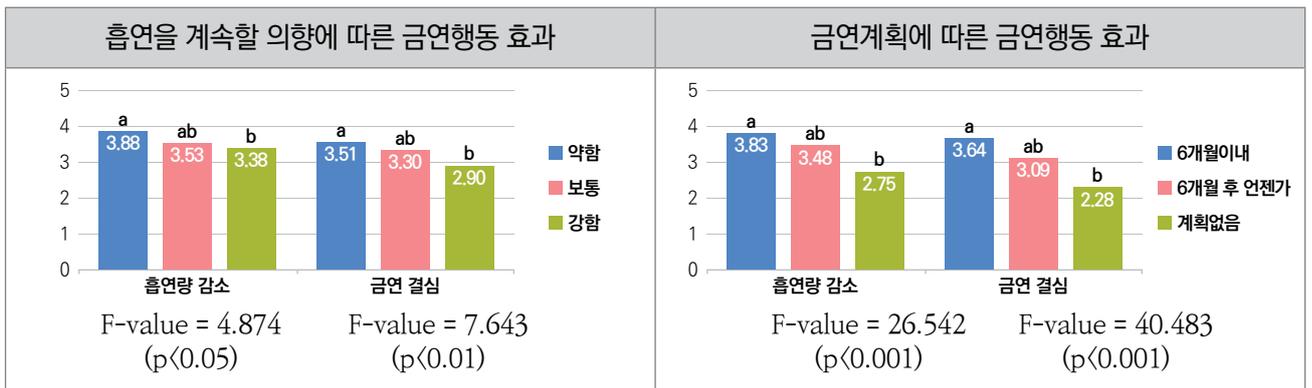
[그림 2] 성인 흡연자 금연행동 영향

(단위 : 명, %)



- 또한, 흡연자 중 흡연을 계속할 의향이 약하거나 구체적인 금연 계획이 있는 경우 경고그림을 보고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을 결심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3] 흡연행태에 따른 경고그림의 금연행동 영향



□ 비흡연자의 흡연방지 효과

- 비흡연자의 경우 성인 81.6%, 청소년 77.5%가 경고그림을 보고 “앞으로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고 응답하여 경고그림이 비흡연자에게 흡연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고그림 주제별 효과

-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음
- 10종의 경고그림 주제별 효과성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고통이나 환부를 나타낸 병변주제가 아동과 임신부 등 대상별로 흡연의 폐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비병변주제보다 경고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성인과 청소년 모두 효과가 높은 경고그림으로 구강암, 후두암, 심장질환을 선정하였음
 - 성인 : 구강암(3.97점), 후두암(3.96점), 심장질환(3.71점)
 - 청소년 : 후두암(3.80점), 구강암(3.67점), 심장질환(3.55점)

[그림 4] 효과성이 높은 경고그림 3순위(5점 척도)

구분	1위	2위	3위
성인	 <p>구강염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p> <p>▲ 구강암(3.97)</p>	 <p>후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p> <p>▲ 후두암(3.96)</p>	 <p>심장질환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p> <p>▲ 심장질환(3.71)</p>
청소년	 <p>후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p> <p>▲ 후두암(3.80)</p>	 <p>구강염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p> <p>▲ 구강암(3.67)</p>	 <p>심장질환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p> <p>▲ 심장질환(3.55)</p>

□ 교체가 필요한 경고그림

- 효과성이 낮아서 교체가 필요한 경고그림으로 성인은 피부노화(46.2%)와 성기능 장애(45.7%), 간접흡연(43.8%)을 선정한 반면, 청소년은 뇌졸중(46.5%)과 피부노화(44.0%), 간접흡연(41.8%)을 선정하였음
- 청소년에게서 뇌졸중의 효과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뇌졸중이라는 질병에 대해 접해본 경험이 적은 청소년들에게 현행 표기면적인 50.0%만으로는 뇌졸중의 위험성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음

[그림 5] 효과성이 낮아서 교체가 필요한 경고그림 3순위(교체 필요성 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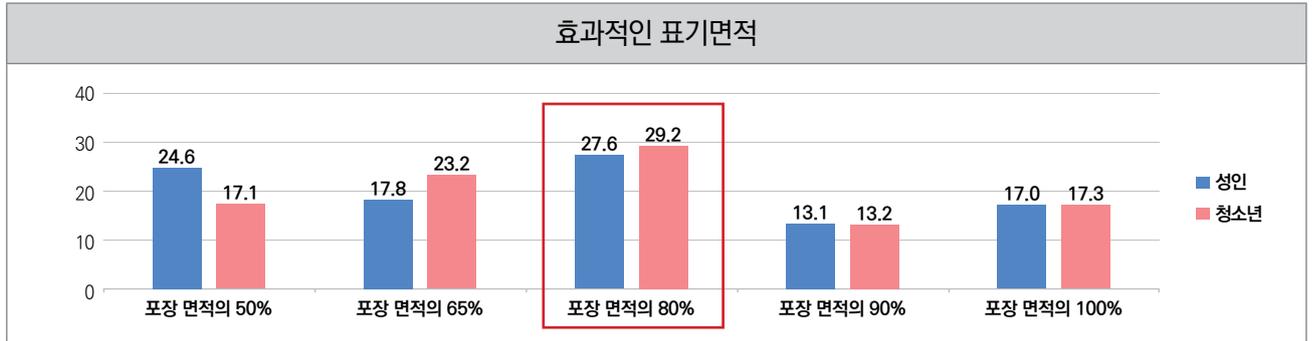
구분	1위	2위	3위
성인	 <p>피부노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p> <p>▲ 피부노화(46.2%)</p>	 <p>발기부전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p> <p>▲ 성기능 장애(45.7%)</p>	 <p>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p> <p>▲ 간접흡연(43.8%)</p>
청소년	 <p>뇌졸중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p> <p>▲ 뇌졸중(46.5%)</p>	 <p>피부노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p> <p>▲ 피부노화(44.0%)</p>	 <p>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p> <p>▲ 간접흡연(41.8%)</p>

□ 경고그림 면적 확대

-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표기면적으로 전체의 80.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성인 27.6%, 청소년 29.2%), 포장면적의 90.0%(성인과 청소년 모두 약 13.0%), 100.0%(성인과 청소년 모두 약 17.0%)라는 응답도 많았음 - 80.0% 이상의 면적을 표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성인의 57.7%, 청소년의 59.7%로 많은 국민들이 경고그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고그림 표기 제도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그림 6] 건강경고의 표기면적에 대한 의견

(단위 : %)



4. 향후과제

□ 경고그림 교체

- 경고그림의 효과 제고를 위해 2년 교체주기에 맞춰 이번 조사의 각 주제별 효과가 낮은 그림의 재사용 여부를 검토해야 함
-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3항에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임⁷⁾
-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통해 2018년 6월까지 가장 효과적인 제2기 경고그림이 선정되어야 할 것임

□ 경고그림 면적 확대

-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앞·뒷면의 50.0% 이상의 면적으로 표기해야 하고, 경고그림 면적이 30.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음
- 표기면적 50%는 WHO 권고사항의 최소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담뱃갑 포장규제 추세에도 크게 뒤쳐지는 것이며,
- 인식도 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이 경고그림 면적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고그림 면적 확대가 필요함

7) 2016년 3월에 총 1,890명(성인 1,200명, 청소년 6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담뱃갑 경고그림의 혐오감 수준 비교」 결과 주제별로 외국그림보다 혐오감 점수가 높게 나온 그림은 없었고, 혐오감이 평균 약 0.39(5점 만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